

# 예보광장

2025 AUTUMN+WINTER  
VOL.57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MAGAZINE



# 예보 광장

2025 AUTUMN+WINTER  
VOL.57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발행인 유재훈 발행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화 02-758-0114 팩스 02-758-0040 디자인·제작 문화공감 02-2266-1897

## Contents



04  
KDIC NEW FACE  
예튼이와 예숨이의 새 얼굴을 찾아서

08  
KDIC가 합니다 ①  
공사 장애인 유도팀, 도쿄 데플림픽에서 빛나다  
김관·이주호 선수 응원기

12  
INTERVIEW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김승언 본부장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조사국 박현규 국장

16  
RE:MEMBER HISTORY  
예금보험공사의 흔적을 찾아서

22  
ESG경영  
커피 향기에 매료되다, 강릉 커피축제



26  
KDIC가 합니다 ②  
러닝 클래스 체험기

30  
정책리포트  
24년 만에 1억 원으로 한도상향

34  
KDIC 홍보대사·명예금융교육강사  
금융철학까지 단단해진 시간  
아나운서 이해성

36  
KDIC GLOBAL  
한-필리핀, 전우에서 동반자로 76년의 동행

40  
KDIC TOGETHER  
일상의 편의를 넘어, 유통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  
BGF리테일



42  
행복 리포트  
5만 원으로 보낸 행복한 일주일

44  
FINANCIAL TRENDS  
저출산·고령화가 바꾸는 금융·예금 트렌드

46  
시사 카툰  
마구잡이 화폐발행이 불러오는 인플레이션



48  
KDIC NEWS  
2025년 하반기 뉴스

52  
COLUMN  
AI 활용 가이드

54  
WITH KDIC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 예보광장 독자 설문조사

〈예보광장〉은 독자 여러분과 호흡하며 더 나은 예금보험공사 사보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사보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방법



참여하기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선물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30일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예솨미

캐릭터 열전!

## 예튼이와 예솨미의 새 얼굴을 찾아서



예솨미

지난 7년간 예보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약해 온 예튼이와 예솨미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신한다. 더 많은 국민에게 예보의 역할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두 캐릭터는 과연 어떤 얼굴을 갖게 될까? 무려 네 가지 시안이 공개된 가운데, 각 캐릭터를 대변하는 주자들이 열띤 토론에 나섰다.



영상보기

### 예금보험공사의 뉴 페이스를 찾습니다!

찬 바람이 불던 지난 11월 중순, 예금보험공사 스튜디오는 뜨거운 전운으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긴장된 표정으로 토론을 준비하는 이들은 바로 윤경창 차장, 문지은 선임조사역, 최수진 계장, 김하민 주임이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약해 온 예튼이와 예솨미의 새로운 얼굴을 선정하기에 앞서 각 시안을 소개하는 프리젠티어로 나선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기존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며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예보는 정책 변화의 의미를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캐릭터를 전면 리뉴얼하기로 했다. 그동안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활동하던 캐릭터였기에, 이번 변신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예금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예금자를 '소중히' 지킨다는 이름의 의미와 정신은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 보호제도를 더 쉽고 친근하게 알릴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끝에 총 4개의 캐릭터 후보가 탄생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에 캐릭터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네 사람이 패널로 참여해 본격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예튼이



왼쪽부터 기금체계개편팀 윤경창 차장, 홍보실 문지은 선임조사역, 기금정책부 최수진 계장, 재무관리부 김하민 주임





## 공사 장애인 유도팀, 도쿄 데플림픽에서 빛나다 김관·이주호 선수 응원기

예금보험공사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국내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하여 2023년부터 7명의 선수를 직접 채용해 장애인 유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예보 입사 이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선수들은 경기력이 향상되어 국내대회 입상은 물론 지난해 김동훈(시각, J2, -73kg) 선수는 파리 패럴림픽 5위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도전이 시작되었다. 도쿄에서 열리는 '데플림픽'에 예보 소속 김관 선수와 이주호 선수가 출전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뜨거운 여정을 함께한다.



협회 관계자와 인사하는 유대일 부사장

### 청각장애인을 위한 또 하나의 올림픽, 데플림픽

데플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청각장애인 올림픽'을 뜻하는 용어로, 'Deaf(청각장애)'와 'Olympics'의 합성어이다. 패럴림픽 유도가 시각장애 선수만 출전 가능한 반면, 데플림픽은 청각장애 유도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무대다. 그런 무대에 예보 소속 선수가 두 명이나 오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부심이었다. "이건 현장에서 응원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취재진은 자연스럽게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도쿄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유도협회 관계자들이었다. 예보 선수단은 본사 소속이면서 동시에 서울특별시 대표 선수이기도 해 체육회 관계자들의 기대가 특히 컸다. 대한장애인유도협회 회장은 "예보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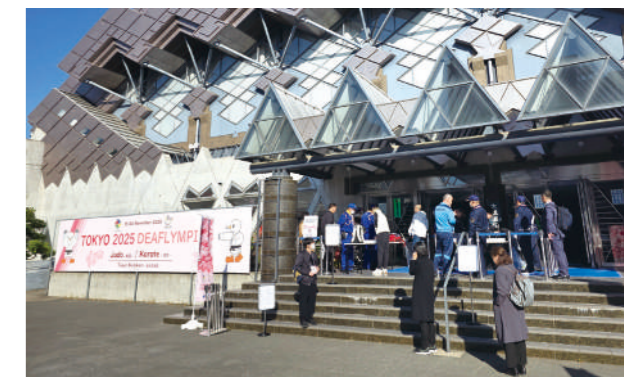
#### 잠깐!

##### 청각장애인 유도 경기 특징

청각장애는 신체 움직임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 방식은 일반 유도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심판의 구두 지시를 들을 수 없으므로, 경기 중단, 경고 등은 어깨 두드리기, 손동작 등 시각·촉각 신호로 전달된다. 관중들의 응원도 조금 다르다. 우렁찬 함성 대신 두 손을 활짝 흔들어 파도타기처럼 응원한다.

### 드디어 경기 시작! 김관, 이주호 파이팅!

경기 당일. "잠은 잘 잤을까?", "식사는 제대로 했을까?" 설렘과 걱정을 안고 선수들을 생각하며 경기장으로 향했다. 유도 경기가 열린 '도쿄 무도관'은 일본 유도인들에게 '성지'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장소다. 관중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독특한 규칙은 경기의 무게감을 한층 더했다. 입장 방식도 패럴림픽과 달랐다. 데플림픽은 당일 선착순 입장. 혹시나 못 들어갈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여유 있는 시간에 도착해 자리를 확보했다. 일본 관중이 대부분이었으나 우리는 작은 태극기 하나에도 '일당 백'의 마음을 담아 응원을 시작했다.



선수단을 응원 중인 유대일 부사장과 김형수 차장

### 이주호 선수, 집념으로 거둔 값진 동메달!

16강전 첫 상대는 미국의 Blocker Tyler 선수다. 이주호 선수는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절반을 따낸 뒤 누르기를 성공시키며 한판을 거뒀다. 첫 경기부터 흐름이 좋았다. 하지만 8강에서는 이란의 강호 Salahshour를 만났다. 접전 끝에 한판을 내주며 패배했지만, 유도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또 하나의 기회가 남아 있었다. 다행히 패자부활전에서 칠레의 Tapia Choque Juan Ivan Antonio 선수와 맞붙어 신승을 거두며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다.

**잠깐!**

#### 데플림픽 유도 경기 방식

##### + 경기 방식

데플림픽 유도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체력 소모가 심하고 대전운에 성적이 좌우되는 격투종목 특성상 실력 있는 선수의 초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패자부활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8강전에서 탈락한 4명의 선수가 패자부활전을 치른 후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2명이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한다.

이 2명과 준결승전의 패자 2명이 맞붙어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즉, 유도에서는 동메달 수상자가 2명(공동 3위)이며, 동메달 결정전 패자 2명이 공동 5위, 패자부활전 패자 2명이 공동 7위로 기록된다.

##### + 연장전

연장전은 golden score 룰을 적용하여 시간제한 없이 승부가 날 때까지 진행된다.



이주호 선수 첫 경기(16강)

### 운명의 동메달 결정전

이주호 선수의 상대는 독일의 Scheller Daniel. 두 선수 모두 실력자답게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몇 차례 이주호 선수의 기술이 한판처럼 보였지만 비디오 판정으로 번복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경기는 결국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3분을 넘긴 시점, 양 선수 모두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 상대가 공격을 위해 몸을 낮추던 바로 그 찰나, 이주호 선수의 번개 같은 되치기! 이번에는 비디오 판정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집념이 만들어낸 동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경기	경기결과	상대선수(국적)
16강전	승	BLOCKER Tyler(미국)
8강전	패	SALAHSHOUR GOL KHANI Ali(이란)
패자부활전	승	TAPIA CHOQUE Juan Ivan Antonio(칠레)
동메달 결정전	승	SHELLER Daniel(독일)

### 김관 선수, 아쉬운 개인전 5위... 그러나 단체전 동메달!

8강전에서 터키의 KUCUKARSLAN Elif 선수를 상대로 유효를 지켜 승리한 김관 선수. 하지만 4강전에서는 이번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멕시코의 강호 HUITRON Maria Isabel 선수에게 누르기 한판을 내주고 말았다. 이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우크라이나의 DIDORENKO Yelyzaveta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며 5위로 경기를 마쳤다.

경기 후 김관 선수는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내일 있을 단체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쉬움은 잠시 미뤄두고 내일 있을 단체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그를 다독였다. 출국 일정으로 다음 날 단체전 현장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김관 선수는 결국 당당히 단체전 동메달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경기	경기결과	상대선수(국적)
8강전	승	KUCUKARSLAN Elif(터키)
4강전	패	HUITRON Maria Isabel(멕시코)
동메달 결정전	패	DIDORENKO Yelyzaveta(우크라이나)



이주호 선수 동메달 수여식



### 에필로그.

#### 함성보다 큰 침묵, 모두의 축제

데플림픽의 응원은 조금 특별하다. 청각장애 선수들을 위해 관중은 함성 대신 두 손을 활짝 흔들어 파도처럼 응원한다. 수천 개의 손바닥이 만들어낸 하얀 물결은 그 어떤 함성보다도 강렬했고,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국가도, 인종도, 장애도 초월해 모든 관중이 선수들의 노력과 경기를 존중하며 보내는 진심 어린 박수는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파도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서 우리 예금보험공사 선수들이 눈부시게 빛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하다. 예보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4년 뒤 더 성장한 모습으로 금빛 업어치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단체사진 찍는 김관 선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새로운 리더가 문을 두드린다. 부실 책임 규명과 공적자금 회수라는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조사본부는 올해 '부실 책임추궁 역량'의 국가적 확장이라는 과제를 중심에 두고 조직 역량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새롭게 부임한 김승언 본부장의 포부와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김승언 본부장

### 금융부실 책임규명의 기준을 세우다

금융시장의 복잡성에 대응하고, 금융사고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법률과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영입해 금융부실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책임 규명을 확실히 했다. 이번에 부임한 김승언 본부장은 금융·경제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처리하며 조직 운영의 감각과 판단력을 키웠고, 금융부실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췄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금융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부실 관련자를 찾아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자금을 환수해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조사 전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지금껏 검사로 쌓아온 역량이 이 조직의 역할과 이어진다고 말한다.

“21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매년 새로운 업무를 맡아 다방면의 공부를 한 것이 예금보험공사에 오기 위한 수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내실과 역량을 키운 전문가 집단으로

1997년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지급모델(payload)의 역할만 수행했지만, 금융 환경이 복잡해지고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예보의 책무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금융회사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회사 정리, 자산매각, 지원자금 회수 등 위험최소화모델(risk minimizer)로 기능이 진화했다. 단순한 사후 처리 기관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핵심 기관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조사본부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내실을 다지고,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사본부는 국민과 직접 맞닿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국민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고, 금

용기관 파산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금융사고 뒤에는 수많은 예금자와 지역 상권, 협력업체가 함께 흔들리는 만큼, 우리의 판단과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승언 본부장은 부실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따지는 과정이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최근 금융거래가 고도화되면서 부실 구조는 더 복잡하고 은폐 방식은 정교해짐에 따라, 전문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의 감독 권한 밖의 상호금융권 부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영역 밖에 있는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는 실효적인 부실책임추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금융사고의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 영역에만 책임추궁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국가 전체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부실 책임 추궁 역량을 국가적 역량으로 확대,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금보호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때

가상자산의 제도적 위치가 재정립되고,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와 다양한 실물·금융자산의 토큰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김승언 본부장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호흡을 가다듬고 예금보호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는 예금보호의 본질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새로운 위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본질도 변치 않을 것이다.

“조직도 우리의 삶처럼 수많은 선택 앞에 놓입니다. 어떤 결정이 정당 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조직을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정답의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통입니다. ‘내 판단’이 우선이라는 생각 보다 ‘우리 함께’라는 생각으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에 새바람이 분다. 부실 원인 규명부터 손해배상청구, 책임재산 환수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사국에 취임한 박현규 국장은 평소 회계 및 증권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를 풍부한 법률 경험과 결합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박현규 국장의 굳건한 의지를 들어본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조사국  
박현규 국장

### 법과 금융의 접점에 서다

‘사명감과 치밀한 준비성을 갖춘 역량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 박현규 국장이 예금보험공사를 바라보는 첫인상이었다.

“일반 금융기업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시스템의 최후 안전판으로서 그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 정리, 예금자 보호, 그리고 부실 책임 조사와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높은 전문성과 치밀한 준비성이 인상적이었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법조인이라는 점 역시 그의 경력을 돋보이게 한다. 박현규 국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건을 최초로 기획하고, 관련 법리를 개발해 수사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부실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다

박 국장이 조사국의 업무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부실 관련자 조사, 손해배상청구와 책임 재산 추적·환수다. 이는 단순한 사후 조치라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한다. 부실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대응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재정적 목적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하는 중요한 예방적 기능을 한다.

“형사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부실의 숨겨진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고 공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위법행위만이 아니라, 조직 문화나 내부 통제 체계의 취약성과 같은 제도적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조사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변동,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조사 및 정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규 국장은 지금껏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정함에 기반한 철저함’을 원칙으로 여겼다. 그러나 결국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직원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공정하게 대우받고, 업무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으며,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할 맛 나는 조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행복한 직원이 곧 강하고 유능한 예금보험공사를 만드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 느려도 꾸준히, 승리하는 사람

“당장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치밀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며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부실 책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와 부실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에는 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는 조사국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전체 구성원에게도 전문성 강화를 당부한다. 금융, 회계,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예보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식과 경험을 조직과 공유하라고 말한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자 가진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전문적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이때 치열함은 결코 상대를 배제하거나 압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수평적인 협업 문화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조직의 모습입니다.”

박현규 국장은 전문성과 치열함이 단순히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역량을 높이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점검하며, 동료와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예보 본연의 역할도 보다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예보 30주년 Re:member history 예금보험공사의 흔적을 찾아서

예금보험공사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예보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특별한 여정에 나섰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동안 걸어온 역사적 순간과 선배들의 생생한 후일담을 되짚는 시간이었다. 서울과 춘천에서 만난 예보의 기억, 그리고 5개의 전·현직 임직원 팀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이번 여정은 예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전·현직 임직원의 땀과 열정을 기억하고, 조직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본다.

## 서울



### Scene #01

#### 예보의 시작, 삼성동 태원빌딩

### 서울의 시간 속 예보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지난 시간 속 예금보험공사의 흔적을 찾는 여행의 첫 번째 출발지는 바로 서울이다. 예보의 첫 사무실이 자리했던 삼성동 태원빌딩부터 장충동 파산재단, 예보의 대표적 회수 사례로 남은 단성사 그리고 현재 예보가 위치한 청계천로 30까지. 예보의 결정적 순간들을 훑어봤다.



영상보기



홍보실 권하연 책임역, 기금정책부 최수진 계장, 금융계약자교육실 최예환 계장, 홍보실 이준희 영상홍보역이 첫 시간 여행지로 찾은 곳은 예보의 출발점인 태원빌딩이다. 1996년 6월 1일 창립멤버 44명이 새 기관의 기틀을 다졌고, 1999년까지 약 200명이 근무하며 예보의 성장기를 함께했던 장소다.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옛 주소(삼성동 143-40)를 확인해 방문했으나, 현재는 '위워크(WeWork)' 공유오피스로 사용되고 있어 내부 출입은 어려웠다. 대신 홍보실 이지현 실장의 회고를 떠올리며 당시 모습을 상상해보았고,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즐겨 걸었다는 선릉과 정릉을 함께 찾았다. 태원빌딩 창으로 내려다보이던 사계절의 풍경—벚꽃, 푸른 숲, 단풍, 흰 눈—은 당시 직원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 SEOUL

### Scene #02

#### 장충동 파산재단 그리고 만남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동호로 242의 장충동 파산재단으로 현재 생활금융교육팀과 함께 19개 파산재단이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간단히 업무 현황을 확인한 뒤 팀은 주변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태원빌딩 시절의 생생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식사 자리에는 프라임저축은행·한맥투자증권 파산재단 관재인인 권남진 부장도 함께해, 수기로 시간외 근무를 기록하던 시절, 당직 근무 분위기, 태원빌딩 지하식당의 추억 등을 들려주며 예보 초창기 일상을 실감나게 전했다. 권하연 책임역과 최수진·최예환 계장은 같은 장소를 오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예보 업무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떠올렸고,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예보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다시금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 Scene #03

#### 대주단 협상과 소송을 거쳐 매각까지, 단성사 채권 회수 이야기

서울 여정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단성사로 이어졌다. 1907년 공연장으로 개관한 단성사는 <의리적구투>, <장화홍련전>, <아리랑>, 최초의 유성영화 <춘향전> 등 한국 영화사의 주요 작품이 상영된 역사적 공간이자 종로3가 문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멀티플렉스 개관과 분양 부진이 겹치며 2008년 부도 처리되었고, 2009년 리모델링 과정에서 11개 저축은행에서 607억 원을 대출받으며 위험이 커졌다. 2011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다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자 단성사 관련 채권 447억 원이 파산절차로 넘어가 예보가 회수 업무를 맡게 되었다. 2013년 7월부터 8개월간 9차례 협의했으나 단성사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되었으나, 약 8개월 뒤 채권단 승소로 회수 절차가 재개되었다. 네 차례 유찰 끝에 2015년 3월 12일 단성사는 575억 원에 매각되었고, 예보는 선량한 수분양자 보호와 부실자산 회수라는 공적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했다.



Scene #04

청계천로 30, 예보의 현재까지

마지막 여정은 예보의 현재 터전인 청계천로 30의 과거로 이어졌다. 청계천박물관을 방문한 팀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청계고가차도 시절을 거쳐 지금의 복원된 청계천에 이르기까지 이 일대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았다. 청계천 복원 이전에는 고가도로(청계고가차도)가 지나가 지금의 주차장 위치가 정문이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예보가 위치했던 당시 건물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지만, 삼일고가도로 자료를 통해 그 시절 도심에 놓여 있던 거대한 구조물과 철거 후 이어진 교통난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예보가 터를 잡고 업무를 이어가는 장소는 도시 변화를 견디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했지만, 그 속에는 예보가 지나온 시간의 깊은 결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예보의 시작과 오늘을 잇는 길 위에서, 기관의 존재 이유와 앞으로의 역할을 다시 떠올려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춘천

CHUNCHEON

예보의 첫 파산종결재단, 석사신협을 아시나요?

낭만과 추억이 깃든 도시, 춘천. 두 번째 시간 여정의 목적지는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최초로 파산종결을 이뤄낸 상징적 사례인 '석사신협(춘천)'이다. 파산법 절차가 정비되기 전, 예보의 소중한 결실로 남은 '처음'의 순간을 만났다.



영상보기



(구)석사신협 모습

Scene #01

춘천에 예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장소가 있다?

보기만 해도 익숙한 멜로디가 떠오르는 춘천 소양강. 이른 아침 ITX-청춘 열차로 도착한 이는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 IT운영부 임종성 선임조사역, 금투리스크관리부 추승엽 선임조사역, 홍보실 문지은 선임조사역이다. 석사신협과 예보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이후 예보는 다수의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당시 파산법 체계에서는 최대 채권자로 참여하는 것 외에 적극적 회수 권한이 부족해, 회수되지 못한 자금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예보는 감사위원회제도와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파산재단 절차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기반을 마련했다. 1999년 법 개정 이후 파산관리인 제도와의 협력이 강화되며 자산 점검과 관리 체계가 정비되었고, 이는 이후 '석사신협'과 같은 본격적인 파산 종결 사례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석사신협 현재모습

Scene #02

지금은 흔적으로만 남은 석사신협 그리고 동부시장

동부시장은 1969년부터 춘천시 동부 팔호광장에서 중앙로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한 유서 깊은 시장으로, 초입에 위치했던 석사신협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인들의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을 만큼 익숙한 장소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기 침체의 여파는 석사신협도 비켜가지 못했고, 결국 1999년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여러 파산재단의 정리를 맡고 있었으며 석사신협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석사신협은 파산 선고 후 2년 만에 금융구조조정 이후 최초로 파산절차 종결 선고를 받는 사례가 되었다. 예보는 파산재단이 자산 처분에 적극 나선 결과 잔여 자산이 크게 줄고, 조만간 파산 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조기 종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예보 역사상 처음으로 '끝맺은' 파산재단의 탄생이었다.

Scene #03

그 시절, 발로 뛰며  
쌓아 올린 회수업무의 초석

‘파산 종결’이라는 짧은 단어 뒤에는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 직후로 최대 채권자를 넘어 직접 파산관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제도 변화가 곧 업무의 수월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2001년 무렵은 지금처럼 파산법 절차가 정비되기 전이라 직원들은 채권액을 손으로 계산하고 필요한 법 조항을 일일이 필기하며 익혔다. 안전경영실 박상희 팀장(당시 청산회수부)은 야근과 출장이 일상이던 시절을 선명히 기억했으며, 그 당시 청산회수부 직원들은 전국 지방 법원을 씬 없이 다녔다. 다만 빠듯한 일정 탓에 지역 맛집은커녕 기차역에서 끼니를 해결했다는 웃픈 후일담도 남았다.



Scene #04

여정의 끝에서  
회수 역사의 의미를 돌아보다

이제 네 사람의 발걸음은 다시 소양강으로 향한다. ‘석사실험 파산종결’은 특별법 시행 이후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참여한 재단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된 사례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공적자금 회수를 완수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의 출발점이 됐다. 당시 언론 역시 이 사례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흐르며 예보의 파산재단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파산관재인 제도가 정착되면서 회수 절차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됐고, 현재는 파산절차 조기종결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파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자산 환가가 정해진 재단을 조기종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 자산 평가와 매각, 최종 배당을 진행한 뒤 종결선고를 받는 방식이다.

한때 빈 건물만 남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공사가 걸어진 회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Re:member History 연수소감

1. 농협중앙회 기금 이관 사건 경험 공유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김재영 부장, 내부통제부 한성주 팀장, 금융계약자교육실 박성진 팀장, 기획조정부 인효상 차장은 농협중앙회 기금이 예보기금으로 이관되던 당시의 주요 사건을 되짚으며 핵심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기금관리자로서 기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태도가 1,400억 원 회수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음을 다시 확인했다. 선배들은 후배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으며, 후배들은 당시의 협업과 판단 과정을 통해 현재의 업무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2. 부산저축은행 본점터 방문

SIFI정리부 하제영 책임역, 금융계약자교육실 맹근영 책임역, 예금보호정책부 김아라 선임조사역, 인사지원부 이수진 계장, 성과경영실 윤민희 계장은 부산저축은행 본점터를 방문해 저축은행 사태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문서로만 접하던 사건의 실제 모습을 보며 당시 예보가 수행한 역할과 결정의 무게를 생생히 체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상황과 대응 과정을 인터뷰로 들으며 위기 대응 업무가 국민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3. 부산저축은행·해솔저축은행 소재지 현장방문

감사실 신창하 실장, 재무관리부 최지만 부장, SIFI정리부 장진모 팀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했다.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한동완 수석책임역, 금융회사경영지원부 문재곤 차장은 최근 PF 부실 확대 등 업권 침체 속에서 과거 사례를 되짚으며 현재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었다고 전했다. 선배 배 모두에게 저축은행 정리 경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4. 서울보증 MOU 담당자 교류

보험리스크관리부 고효진 차장은 서울보증보험과의 MOU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협업 경험을 공유하며 약 15년에 걸친 업무 흐름을 정리했다. 참석자들은 실무 협조는 대체로 원활했으나, 주요 자료 제공이 늦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효진 차장은 이번 교류가 현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5. 통인시장 방문 및 상인회 간담회

재무관리부 권민제 차장, 금융정리부 민지영 선임조사역, 채권관리부 오정민 책임역, 인사지원부 정찬민 책임역은 통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지원, 도시락카페 업전 제작, 생활금융교육 등 과거 ‘행복예감’ 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통인시장 지원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 긍정적 효과를 다시 확인했으며, 향후 지속적 상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주년을 계기로 과거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재추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바다 향기,  
커피 향기에 매료되다

## 강릉 커피축제

예금보험공사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강릉의 대표 지역 축제인 강릉커피축제를 찾았다. 200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은 강릉커피축제는 오랜 시간 강릉의 커피 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함께 키워온 축제로, 이제는 '커피 도시 강릉'을 상징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연주영 주임, 은행리스크관리부 이창민 선임조사역, 홍보실 문지은 선임조사역, 금융계약자교육실 최예환 계장이 커피축제를 찾았다.



커피는 언제부터 마셨을까?

커피의 기원은 에티오피아 고지대로 전해진다. 염소지기 칼디가 붉은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흥분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커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그러나 실제로 커피가 음료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은 15세기 예멘의 모카 지역으로 수피 수도승들이 수행 중 각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시던 음료였다. 이후 커피는 아라비아 전역과 16세기 이스탄불의 카페하네를 거쳐 점차 확산됐고, 오스만제국의 무역 통제 속에서도 유럽과 아시아로 퍼지며 세계적인 음료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890년대 고종황제가 커피를 처음 접한 기록을 시작으로 다방 문화와 자판기 커피를 거쳐 오늘날의 스페셜티 커피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강릉은 안목해변 커피거리와 로스터리 문화를 바탕으로 '커피 도시'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바다향과 커피향이 공존하는 풍경은 강릉만의 고유한 매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 흐름을 하나로 모은 것이 바로 강릉커피축제다.

향기로운 여정, 제17회 강릉커피축제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기기에 앞서, 이들은 오전 일정으로 강릉을 대표하는 로스터리 카페 테라로사 본점을 방문했다. 매장 내부에는 생두 자루와 다양한 원두, 커피나무 모형이 전시돼 있었고, 로스팅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원두를 살펴보던 이창민 선임조사역은 오스만제국이 커피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생두 반출을 금지하고 볶은 원두만 수출했던 세계사 이야기를 소개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역사적 맥락이 되짚는 시간이었다. 또한 '붉은 땅'을 뜻하는 테라로사라는 이름에는 커피나무가 자라는 산화된 토양을 의미하는 어원이 담겨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단순한 카페 방문이 아닌, 커피의 뿌리와 의미를 이해하는 경험이었다. 카페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네 사람은 강릉커피축제가 열리는 안목해변으로 이동했다. 11월 1일 방문한 축제장은 별의별 강릉커피 시음행사, 체험존, 원두상점, 커피&디저트 마켓, 수공예 마켓, 100인 100미 퍼포먼스, 커피와 인문학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었다. 안목해변 커피거리 일대는 대부분 마켓과 부스로 채워질 만큼 규모가 컸고,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축제장은 커피 향과 함께 활기로 가득했다. 이들은 먼저 체험존으로 향해 두 개 조로 나뉘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 조는 라떼아트 체험에 도전했다. 연주영 주임은 '끝없는 사랑'을 표현한 라떼아트를 완성했고, 문지은 선임조사역은 네잎클로버 모양을 만들기 위해 집중했다. 다만 우유양 조절에 실패해 다소 예상과 다른 모양이 완성됐지만, 그마저도 현장의 웃음을 자아내는 즐거운 에피소드가 됐다. 최예환 계장과 이창민 선임조사역 조는 튀르키예 커피 추출 체험에 참여했다. 전통적인 뜨거운 모래 대신 가스버너를 활용해 커피를 끓였는데, 끓어오르는 타이밍에 맞춰 거품을 떠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창민 선임조사역은 "평소 마시는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진하고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후에도 프로그램 일정이 겹쳐 다시 두 조로 나뉘어 움직였다. 한 조는 100인 100미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100명의 시민 바리스타가 각자 다른 레시피로 커피를 내려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행사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줄은 길었지만,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취향이 담긴 커피를 맛보며, 커피가 얼마나 폭넓은 음료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다른 한 조는 「커피와 인문학」 강연에 참석했다. 강릉샌드를 판매하는 카페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는 윤여태 강연자가 우리나라 역사 속 커피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과 커피 시연을 함께 선보였다. 최예환 계장은 특히 고종황제와 커피를 둘러싼 일화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꼽았다. 고종의 총애를 받던 러시아 통역관 김홍륙이 유배를 가며 양심을 품고 왕이 마시던 커피에 독을 넣었던 사건인데, 커피를 즐기던 고종은 이를 눈치채고 벌어냈지만 황태자 순종은 많은 양을 마셔 건강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역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줬다. 프로그램 사이사이에는 커피&디저트 마켓과 수공예 마켓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안목해변 일대에는 커피와 디저트뿐 아니라 집게핀과 반지 같은 액세서리, 커피 비누, 말차 샴푸 등 이색적인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커피를 소재로 한 로컬 상품과 업사이클링 제품들은 강릉커피축제가 단순한 시음 행사를 넘어 지역 문화와 창작이 어우러진 축제임을 느끼게 했다.

커피로 기억된 강릉의 하루

축제를 마친 네 사람은 각자의 소감을 전했다. 이창민 선임조사역은 "바다를 기대하고 왔지만, 축제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 바다보다 커피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주영 주임은 "축제 규모가 크고 준비가 잘돼 있어 행사 진행이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문지은 선임조사역은 "사전 답사를 하며 과연 재미있을까 걱정했는데, 네 명이 함께하니 더욱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며 영상 시청을 독려했다. 최예환 계장은 "가위바위보에 져서 인문학 강연을 듣게 됐지만,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됐다"고 웃으며 후기를 남겼다. 강릉커피축제는 커피를 매개로 역사와 문화, 체험과 지역경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축제였다. 커피 향과 바다 내음이 공존하는 안목해변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ESG 경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릉이라는 도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오래 기억될 축제였다.



# 우리는 오늘도 달린다! 러닝 클래스 체험기



영상보기

전 세계적으로 러닝 열풍이 거세다. 한강공원에서도 걷는 이들보다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을 더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러닝의 매력에 푹 빠진 예보 구성원들도 서울 압구정의 러닝 스튜디오 'RUN COP'에 모였다. 더 건강하게,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오래 달리기 위해 모인 이들의 러닝 클래스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인사지원부 인사제도TF 이승훈 팀장, 인사지원부 인사팀 김청수 차장, 준법경영실 준법기획팀 이화영 책임역, 안전경영실 안전보건팀 구동현 선임조사역



기초보강운동(런지) 중인 참가자들

## 나의 러닝을 업데이트하다

러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세가 반복되면 무릎·골반·허리 등 곳곳에 부담이 쌓여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효율적으로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움직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많은 러너들이 '나에게 맞는 러닝'을 찾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과 코칭하는 곳을 찾고 있다.

RUN COP에서 진행된 이번 러닝 클래스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수업은 RUN COP의 전문 코치가 참가자들의 기본 움직임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문을 열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하체 움직임 점검을 통해 몸의 균형을 살펴본 뒤, 러닝 분석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차근차근 쌓아갔다. 발 크기와 발볼을 측정하는 간단한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발 길이가 훨씬 짧게 나온다"는 등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코치는 "발 사이즈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신발 선택과 부상 예방에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러닝 자세 촬영 분석이었다. 참가자들은 트레드밀 위에서 자연스럽게 달리는 모습을 30초에서 1분가량 촬영하고, 코치와 함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순간, 모두가 "내가 이렇게 뛰고 있었나?"라며 놀라워했다.

이화영 책임역은 상체가 뒤로 젖혀지며 중심이 흔들리는 패턴을 발견했고, 김청수 차장은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져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발의 각도가 좁거나 팔 스윙이 과도하게 흔들려 리듬을 깨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스스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영상으로 드러나자,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코칭 내용을 집중해 들었다. 잘못된 패턴을 교정하기 위해 어떤 근육을 활성화해야 하는지, 어떤 리듬을 유지해야 하는지 등 세세한 조언이 이어지며 자세가 한 단계씩 정리되어 갔다.

처음으로 자신의 달리기를 촬영으로 본 김청수 차장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정적균형능력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참가자들

## 러닝의 기술을 배우다

분석 후에는 교정과 보강운동이 이어졌다. 팔 스윙을 자연스럽게 보내는 법, 과도한 보폭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법, 뒤꿈치에 실리던 충격을 발 앞쪽과 중간으로 부드럽게 분산시키는 착지 원리 등이 차례로 설명됐다. 이어 런지와 햄스트링 활성화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무게 중심 안정화 훈련도 진행됐다. 2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효과는 놀라울 만큼 즉각적이었다. 연습 중 이승훈 팀장은 “훨씬 편해졌어요. 보폭만 줄어도 느낌이 다르네요”라며 변화를 바로 체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짧은 수업이었지만 참가자들은 러닝의 기본 원리를 새롭게 배우고, 자세를 구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무게 중심 안정화 훈련을 하는 참가자들



자세 교정 후 바른자세로 달리는 참가자들

이승훈 팀장은 자신의 러닝 패턴을 이해한 뒤 “다시 꾸준히 달릴 힘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고, 2026년 3월 도쿄마라톤을 준비 중인 김청수 차장은 “정확한 자세를 배우니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화영 책임역은 “처음으로 내 달리기를 객관적으로 봤다”며 앞으로 거리를 조금씩 늘려볼 계획을 전했다. 평소 10km 러닝을 즐기는 구동현 선임조사역은 물집이 생기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러닝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 일상의 리듬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꾸준히 달리면 체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러닝 원데이 클래스는 네 사람의 러닝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겁게 달리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 Mini Interview

인사지원부 인사제도TF  
이승훈 팀장



러닝을 시작한 지는 꽤 됐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이번 클래스에서 제 러닝 영상을 보며 보폭과 착지, 팔 스윙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왜 통증이 생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방법을 알고 나니 다시 꾸준히 달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기록보다 오래, 다치지 않고 뛰는 러닝을 목표로 훈련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사지원부 인사팀  
김청수 차장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혼자 연습해왔지만, 제대로 뛰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수업에서 상세 자세와 시선 처리, 팔 스윙 등 세세한 부분까지 교정을 받으면서 ‘아, 이래서 힘이 많이 들었구나’를 실감했어요. 내년 도쿄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 무엇보다 부상 없이 완주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준법경영실 준법기획팀  
이화영 책임역



반년 정도 러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좋아 계속 달려왔지만, 내 자세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늘 아쉬웠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 촬영 영상을 통해 상체 흔들림과 시선 습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리를 조금씩 늘리며 즐겁고 안전하게 달리고 싶습니다.

안전경영실 안전보건팀  
구동현 선임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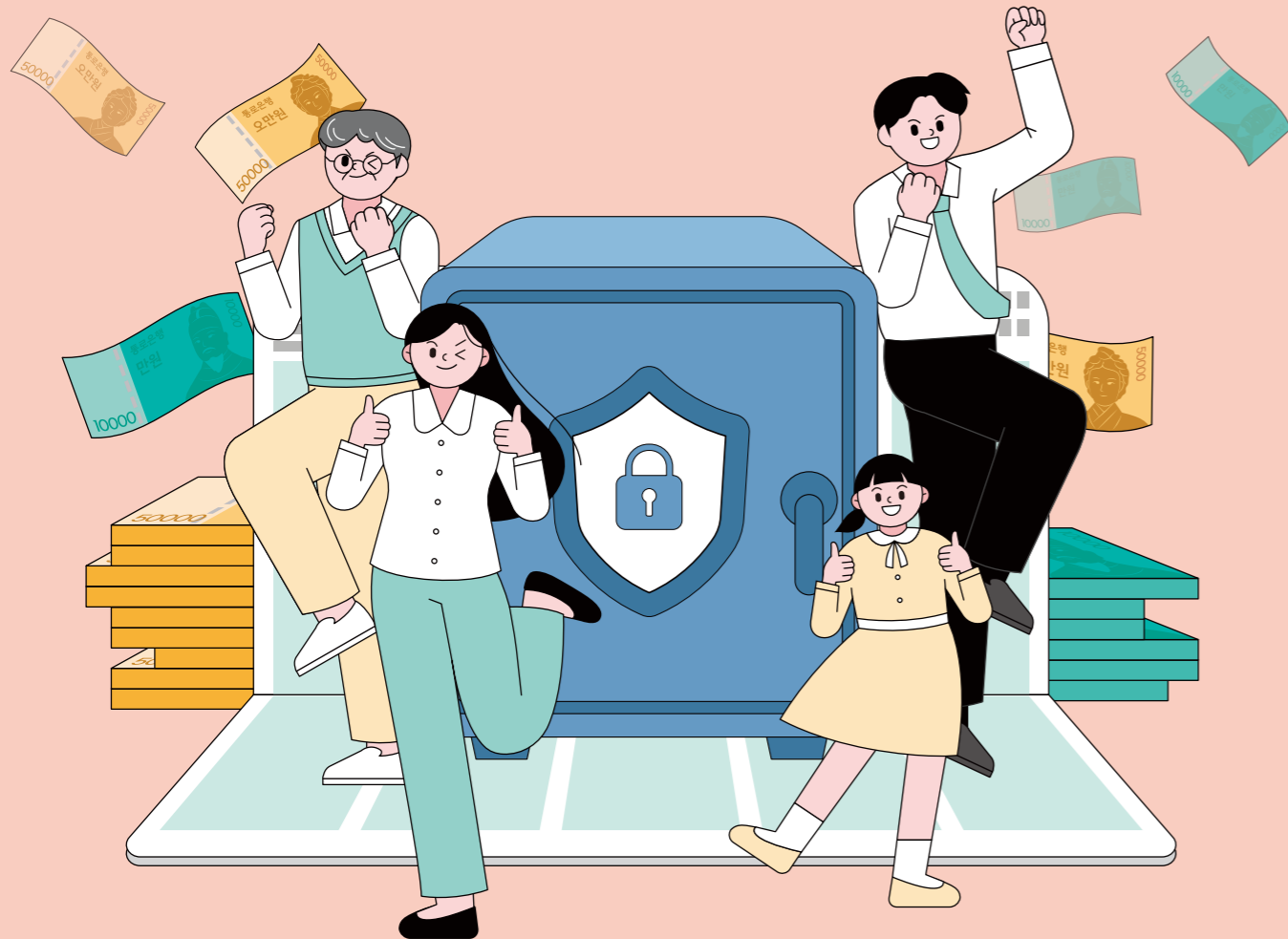
주 5회 정도 10km를 달리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지만, 앞발에 자주 생기는 물집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클래스에서 발 사이즈와 착지 습관을 점검하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됐고, 보강운동의 필요성도 절감했어요. 앞으로는 기록 경쟁보다 여행지 러닝이나 트레일러닝처럼 러닝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보기

# 24년 만에 1억 원으로 한도상향 국민의 재산보호를 더욱 두텁게!

- ✓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보호 한도상향
- ✓ 금융사별로 예금자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
- ✓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해당!



##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시대 개막

2025년 9월 1일,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도 그간의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하여,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국민의 예금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천만 원을 유지해 왔으며, 그동안 국민의 1인당 GDP(2001년 대비 2.9배 증가)와 예금자산 규모(2001년 대비 5.4배 증가)를 고려할 때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SVB 사태 이후 예금보호 한도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언론과 시장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예금보호 한도상향을 포함한 10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4년 말 여야가 민생안정 법안으로 한도상향을 추진하는 데 전격 합의하면서 개정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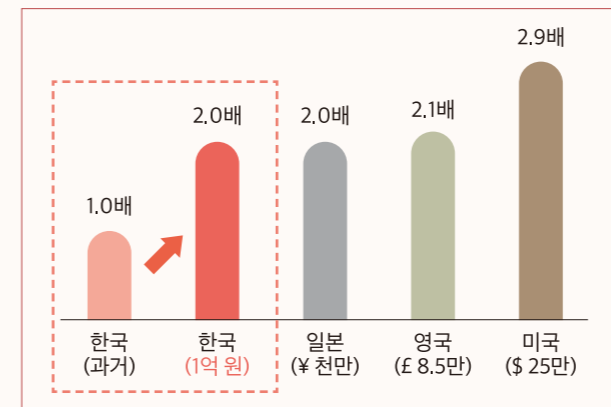
## 보호 한도상향, 그것이 알고싶다!

정부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계약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는 상호금융업권의 보호 한도도 함께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예보가 보호하는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탁·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또한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보호하던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함께 상향되어 국민의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한도상향 추진 과정에서는 '예금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가'라는 문의가 특히 많았다. 예보는 이 부분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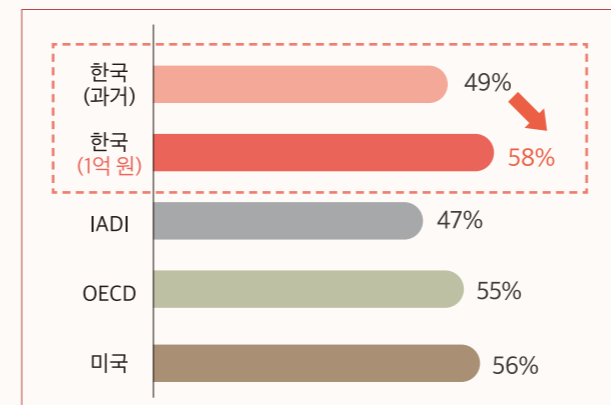
## 금융시장 자금이동, 이상 無

한도상향 결정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예보는 연초에 자금 이동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장 영향을 사전에 분석했고, 입법예고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하여 업권별 예수금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려와 달리 한도상향 전후로 큰 자금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금이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도상향이 예금자의 신뢰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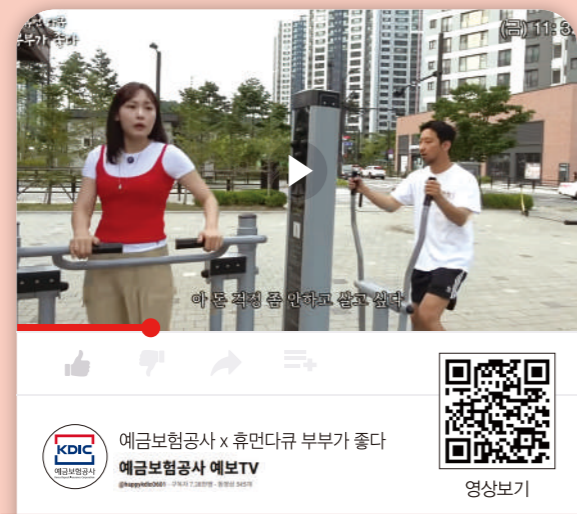
## 예금보험기금 제2막을 열다

예보는 2024년 11월부터 금융학회와 함께 보호 한도상향과 특별계정 종료 등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목표기금 규모와 예보료율 체계를 재산정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부담능력에 맞는 목표 규모 설정을 위해 업권과의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민관합동 TF를 꾸려 종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24년 만의 한도상향을 계기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튜브 콘텐츠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예금보호 한도상향'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변화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을 위해 한도상향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낸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웹드라마, 토포쇼, 패러디 광고 등 형식과 개성이 각기 다른 콘텐츠들은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시대'의 핵심 메시지를 생활 속 사례와 유머, 대화 방식으로 풀어내며 높은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공한다. 관련 영상을 소개한다.

### 로또에 당첨된다면???? 휴먼다큐 부부가 좋다



웹드라마 <로또에 당첨된다면?>은 로또 2등에 당첨된 부부가 갑자기 생긴 7천만 원을 어디에 넣어야 안전한지 티격태격하며 고민하는 상황을 코믹하게 그린다. 영상은 부부가 생활비·택배·에어컨·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예금 이야기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남편이 “은행 망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준다더라. 그럼 남은 돈은 내 통장에 넣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처럼, 현실적인 대사를 활용해 당첨금을 한 은행에 그냥 넣어도 되는지, 여러 통장에 나눠 넣어야 안심이 되는지 등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이런 유쾌한 키키타카가 이어지던 중, 아내가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덕분에 한 금융회사에 예치해도 예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짧은 웹드라마이지만 현실 부부 같은 코믹한 말다툼 속에 예금보호 한도상향 정보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재미·공감·정확한 정보 전달을 모두 잡은 콘텐츠로 완성되었다.

### 과학자와 역사학자가 1억을 두고 싸우면 생기는 일



<과학자와 역사학자가 1억을 두고 싸우면 생기는 일>은 숫자 '1억'을 주제로, 이혜성 아나운서의 진행 아래 김범준 물리학과와 김재원 역사학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펼치는 토포형 프로그램이다. 두 학자는 '1억 시간', '1억 개', '1억 미터', '1억 번의 사건'을 소재로 과학과 역사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한다.

김범준 교수는 우주의 나이를 기준으로 1억 시간이 고작 26초에 불과한 '찰나'라고 설명하는 반면, 김재원 교수는 인류사로 보면 문자도 없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대한 시간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 논쟁은 자연스럽게 '돈 1억 원'이라는 주제로 이어진다. 지폐 무게만 보면 사과 몇 개에 불과하지만, 가계의 안정, 생계, 연구비 등 현실적 기준에서 볼 때 1억 원은 누구에게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금액이라는 데 두 사람은 의견을 모은다. 영상은 1억이라는 숫자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에 1억 원이 얼마나 소중한 든든한 금액인지, 그리고 그 돈을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종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음을 안내하며,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예금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뭐가 다행이라는 거여~? 참 다행이야!! 예보가 있어서



<뭐가 다행이라는 거여~?> 영상은 대중에게 익숙한 알바몬 광고를 패러디한 공공기관 최초의 시도로, 제도 변화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밝고 유머러스한 톤을 적극 활용했다. 시골 마을의 할머니들이 “또 은행 가?”, “저 언니 통장에 5천만 원 넘게 있어서 두 군데 다닌다잖아”라는 이야기가 흘러가고, 마지막에는 “이젠 1억까지 보호해 준다”는 대사를 통해 은행은 한 곳만 다니면 된다는 직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한도상향의 장점을 누구나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원작 광고 특유의 리듬감 있는 말투와 반복적 구조, 소탈한 상황극을 유쾌하게 재현하여,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 변경 정보를 일상 대화처럼 가볍고 친근하게 스며들도록 만든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한 금융회사당 1인 기준 최대 1억 원 보호’라는 핵심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며 신뢰성을 더했다.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재치와 친근함, 정확한 정보를 모두 담아낸 <뭐가 다행이라는 거여~?> 영상은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시청자가 예금보호 한도상향 메시지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왔다는 평가다.

## 신뢰를 전하는 역할 금융철학까지 단단해진 시간



아나운서 이해성

예금보험공사 홍보대사이자 금융교육 명예강사로 활동 중인 이해성 아나운서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전했다. 광고 촬영부터 금융교육, 경제 골든벨 행사까지 다양한 현장을 함께하며 예금자 보호제도의 의미를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을 보탤다. 올 한 해 이해성 아나운서가 경험한 순간들과 직접 전한 메시지를 정리했다.

###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예보와 함께한 활동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사실을 광고로 국민에게 알렸던 일이 가장 뜻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인들, 가족들까지 “TV 광고 보고 알게 됐다”고 연락이 많이 와서 개인적으로도 뿌듯했어요. 또 ‘군장병 대상 경제 골든벨 행사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젊은 장병들과 직접 소통한 시간이 특별했고, 금융교육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홍보대사로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홍보하는 사람이 신뢰롭지 못하다면 그 메시지 자체의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또 금융교육 현장이나 ‘삼프로TV’ 협업 촬영에서도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금융생활의 중요성, 그리고 예금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예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 활동 중 직원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요?

작년과 올해 진행된 GTP(Global Training Program)는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연사들이 세계 금융 정세와 전략, 한국 경제 사례를 자신들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GTP는 해외 예보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세계 금융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강의들도 많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꼭 청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보TV에도 이런 금융 지식과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직원분들께서 구독해 두시면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배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느낀 기관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예보 임직원분들은 전문성과 지적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대화를 나눠도 금융·법률·회계 등 여러 분야에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품격 있으면서도 친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행사나 촬영 때마다 늘 환대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적인 분위기와 편안함이 함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 예보만의 매력 같아요.

### 마지막으로 홍보대사로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요즘 특히 젊은 세대가 주식·코인 등 고위험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잘 활용하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시대일수록 ‘믿고 기대어 쉴 수 있는 예금’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예금이 가진 복리의 힘, 안정적 자산의 가치에 대해 많은 영감을 줄 겁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예금자 보호제도의 의미를 알고 안심하고 금융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필리핀, 전우에서 동반자로 76년의 동행



필리핀의 전통 공동체 정신 '바야니한'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서로의 영웅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경기도 고양시 소재)

## 전쟁의 참화 속 피어난 우정

7,641개의 아름다운 섬의 나라, 필리핀. 많은 사람들은 필리핀을 한국인이 선호하는 에메랄드빛 휴양지로 생각하지만 양국의 인연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8월 7일 필리핀은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참전을 결정하고 6번째 규모인 7,420명을 파병한 전우이다. 낮은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112명의 전사자와 230명의 부상자를 낸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통해 기념되고 기억되고 있다. 1949년 3월 3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양국 관계는 6.25를 통해 '혈맹(血盟)' 관계로 격상되었고 전후 복구를 거쳐 공동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필리핀 제10세대 전투단(PETOK) 병사



마닐라 전경

## 전쟁의 인연에서 관광, 그리고 일상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맺어진 인연은 이제 관광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부, 보라카이, 팔라완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친절함으로 기억되는 나라, 필리핀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휴양지이다. 2024년 기준으로 약 176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26%)에 해당된다. 한국은 필리핀의 최대 방문국이다. 따뜻한 기후와 낮은 물가 그리고 필리핀 공동체 의식인 바야니한(Bayanihan)에 기인한 밝은 미소와 환대는 한국인의 어학연수와 은퇴 이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바야니한은 개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필리핀의 전통 공동체 의식

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야니한은 과거 코코넛 잎과 같은 가벼운 재료로 집을 만들던 시절 이웃의 집을 옮기도록 돕는 공동체적 연결을 의미하며, 20~30명의 사람이 집을 옮기고 나면 감사의 의미로 작은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반대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이색적인 여행지이자 K-pop과 K-드라마의 나라다. 2024년에는 약 51만 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한류의 영향으로 상호 관광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양국의 교류는 이제 관광을 넘어 일상 속 문화 교류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 대학로의 혜화동 필리핀 마켓은 매주 일요일이면 필리핀 전통 음식과 공예품, 향신료가 진열된 노점들로 붐빈다. 이곳은 필리핀 교민뿐 아니라 현지 문화를 경험하려는 한국인들로 가득 차, '한국 속의 작은 마닐라'로 불린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에는 110여 개의 한인 업체가 영업하는 '코리아타운(Koreatown)'이 조성되어 있다. 한국 식당, 카페, 한류상품 매장, 한국어 간판이 즐비해 필리핀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교민들에게는 서로를 이어주는 정서적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



필리핀 코리아 한인타운 거리

##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협력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는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여러 부분에서 미국의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과 유사한 길을 걸었다.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는 중앙은행 총재 특별보좌관이자 훗날 PDIC 이사로 재직한 안드레스 카스티요 주도로 1963년 6월 22일 설립되었다. 최초에는 미국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제도 가입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겼으며, 1969년 모든 은행의 예금자 보호제도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PDIC의 부보금융회사는 은행, 지방은행 등 470여 개이며, 예금보험 한도는 1백만 필리핀 페소(약 25백만원)로 올해 3월 50만 필리핀 페소에서 상향되었다.

예보와 PDIC는 2014년 7월 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예보는 한국 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PDIC에 대한 예금보험시스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화상연수, Study Visit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PDIC**

*Bank deposit mo, protektado!*

**필리핀 예금보험기금**  
(Philippines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4년 말 기준)

- 설립: 1963년
- 직원 수: 532명
- 부보금융회사  
476개(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 기관형태: Paybox Plus
- 보호 한도  
1백만 PHP(‘25년 3월 기준 50만 PHP에서 상향)
- 예보-PDIC 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14년 7월~)



‘25,3월 공사-PDIC MOU 갱신 체결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DMS)

올해 3월에는 필리핀과 MOU를 갱신 체결하였고, MOU 체결 이후 8월에는 PDIC 직원들이 예금보험금 지급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사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내방하였다. PDIC는 예보의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DMS, Deposit Monitoring System)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당국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과정과 시스템 운영 성과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은 79개 저축은행의 예수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뱅크런 징후의 사전 포착 및 금융당국과의 체계적인 공조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 국내에 도입되었다.

한편, 예보는 예보기구 간의 교류 뿐만 아니라 필리핀 중앙은행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IMF 외환위기, 대규모 저축은행 사태를 극복한 예보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World Bank의 부실은행 정리제도 강화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보는 필리핀의 금융안정성 제고와 예금자 보호제도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25년 8월 공사 내방 디지털 전환 TA

## KDIC 이웃을 소개합니다⑤

# 일상의 편의를 넘어, 유통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 BGF리테일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 BGF리테일. 전국 18,500여 개 CU 점포를 기반으로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생활 인프라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금융안전 인식 확대에도 앞장서는 든든한 이웃을 소개합니다.



### 일상의 편의를 넘어 생활 인프라로 확장하다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 BGF리테일은 전국 18,500여 개 CU 점포를 기반으로 고객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 온 생활 인프라 기업이다. 1990년 국내 편의점 산업의 초창기부터 성장해 온 BGF리테일은 'Be Good Friends'라는 경영철학 아래 고객과 사회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가치를 실천하며,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생활의 편의와 안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 물류·IT·유통망을 통해 도시와 농촌, 도서 지역까지

촉촉하게 연결하며 유통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넓혀왔고, 몽골·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미국 하와이 등 해외에서도 'K-편의점'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Nice to CU"라는 슬로건처럼 CU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을 맞이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 플랫폼이다. 도심 골목은 물론 농어촌과 도서 지역까지 편의와 안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K-편의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 전국 단위의 물류망과 디지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BGF리테일은 가맹점주·협력사·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유통 산업의 신뢰 기반을 다지고 있다.

###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책임 '아이CU'

BGF리테일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경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점포 운영에는 에너지 효율과 자원 순환 체계를 적용해 환경 영향을 줄이고, 가맹점주·협력사와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신뢰 기반을 확장해 왔다. 전국 CU 점포는 어린이·장애인·고령층 등 다양한 이웃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아이CU(Care for yoU)'는 BGF리테일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캠페인이다. 전국 18,500여 개 점포 POS 시스템을 활용해 실종·미아



아이CU(Care for yoU) : CU 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 포함)를 임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하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주변 점포로 전달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왔다.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사례자가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되며 CU는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더불어 아이CU 얼라이언스, 아동안전 그림 공모전, 아동안전백서 발간 등을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확산 하는 생활 속 금융안전

BGF리테일은 생활 밀착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안전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예금보험공사와 협력해 전국 CU 점포의 듀얼 POS 모니터를 활용한 금융제도 안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고객은 결제 과정에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와 예금보호 한도상향 등 일상과 밀접한 제도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18,500여 개 CU 점포가 정보

전달 플랫폼으로 가능한 이번 협력은 높은 접근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공 메시지를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BGF리테일 ESG팀 박채영 팀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인 CU 점포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BGF리테일은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성을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오늘날 사람과 지역, 세대를 잇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CU 점포, 듀얼 POS (한도상향 협업)

## 5만 원으로 보낸 행복한 일주일



은행리스크관리부 이창민 선임조사역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

점심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메뉴, 그다음은 가격이다. 오늘은 어디까지 관찮을지, 커피까지 마셔도 될지 잠깐 계산부터 해본다. 이런 고민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된 지금, 예금보험공사 은행리스크관리부 이창민 선임조사역과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이 점심시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써보기로 했다. 조건은 단 하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에 쓸 수 있는 돈은 5만 원이다. 은행리스크관리부 이창민 선임조사역과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은 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각자의 점심시간을 채워 나갔다. 식사를 고르고, 메뉴를 고르고, 때로는 커피를 포기하거나 웃음을 택했다. 같은 5만 원이었지만, 점심시간의 풍경은 조금씩 달랐다. 누군가는 익숙한 공간에서 여유를 찾았고, 누군가는 선택과 균형 속에서 만족을 만들었다. 일주일 동안의 점심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직장인이 5만 원으로 하루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됐다. 그들의 '5만 원으로 보낸 일주일'을 따라가 본다.



### 점심시간에 발견한 소소한 즐거움

은행리스크관리부 이창민 선임조사역

이창민 선임조사역의 일주일 점심은 익숙한 일상 속에서 작은 여유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이창민 선임조사역의 월요일 점심 메뉴는 김밥이었다. 예보 인근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해 회의실로 향했다. 동기와 마주 앉아 나누는 점심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월요일의 긴장을 풀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익숙한 메뉴와 편안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하루의 속도를 늦춰준다. 화요일에는 샐러드로 가볍게 점심을 해결했다. 전날 약속으로 다소 과해진 식사를 스스로 조절한 선택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명동성당까지 천천히 걸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수요일의 점심시간은 조금 더 활기를 띠었다. 동기들과 만화

카페를 찾아 보드게임을 즐겼다. 커피를 걸고 한 판 더 이어진 게임 덕분에 주중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날아갔다. 목요일에는 혼자 김치볶음밥 단골집을 찾았다. 늘 먹던 익숙한 맛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줬다. 금요일, 한 주의 끝은 소박하게 마무리했다. 명동에서 떡볶이와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일주일을 차분히 정리했다. 이창민 선임조사역에게 '5만 원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익숙한 공간과 사람 속에서 여유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사용 금액 총 48,600원

- 월 김밥 9,300원
- 화 샐러드 11,000원
- 수 만화카페 + 식사 10,300원
- 목 김치볶음밥 9,000원
- 금 떡볶이·김밥 9,000원



### 선택과 균형으로 채운 현실적인 만족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

조민서 주임의 점심시간은 비교적 분명한 기준으로 시작되었다. '아끼되, 만족할 것!' 따라서 월요일만큼은 잘 먹어야 일주일의 컨디션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9천 원짜리 제육쌈밥을 선택했다. 든든한 한 끼 덕분에 오후 일정도 한결 가벼웠다. 식사 후에는 1천 원 '아야'로 점심시간을 마무리했다. 화요일에는 돈가스를 골랐다. 먹고 싶은 메뉴는 과감히 선택하되, 커피는 가볍게 테이크아웃으로 대신했다. 만족과 절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하루였다. 수요일에는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겼다. 동료들과의 커피 내기에서 져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보다 웃음이 먼저 나왔다. 점심시간이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다. 목요일 점심은 한결 가벼웠다. 전날 커피 내기에서 이겼던 김정화 선임조사역이 5천 원 멀치국수 집을 찾아준 덕분이다. 부담 없는 가격에 양까지 넉넉해 말 그대로 '5천 원의 행복'을 제대로 누렸다. 금요일에는 7천 원짜리 짜장면으로 한 주의 점심을 마무리하고, 새로 생긴 가게에서 소금빵 하나를 더해 작은 디저트를 즐겼다. 조민서 주임에게 이번 체험은 아끼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면 동시에 현실적인 선택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일주일로 남았다.

사용 금액 총 49,800원

- 월 백반 9,000원+커피 1,000원
- 화 돈가스 8,500원+커피 1,200원
- 수 돈가스 11,000원 + 커피 4,600원
- 목 국수 5,000원
- 금 짜장면 7,000원 + 소금빵 2,500원





## 저출산·고령화가 바꾸는 금융·예금 트렌드

글.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 고령사회, 이미 현실이 되다

우리나라 경제에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중대한 문제가 닥쳐오고 있다. 이는 단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이나 소비 트렌드 등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인구의 점진적 변화는 우리에게 경제적 현상을 분명하게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저출산에 대한 경종이 반복적으로 울리다 보니 점점 둔감해지는 측면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 2025년 11월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거주자의 21.1% 수준인데, 이는 2015년보다 8%p 상승한 값이다. 같은 기간 19세 미만 인구 비중은 20.1%에서 14.9%로 5%p 감소했다. 전체 인구는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2017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최소 2명을 넘어야 인구규모가 유지됨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고 겨우 반전하여 올해 0.8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관성'이 높은 변수로 그 값이 급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요형한 해결책은 불가능한 주어진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인구 추세

지난 수 세기 동안 경제학자들은 경제 문제를 연구할 때 인구가 감소할 것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나라별로 찾아온 고도성장기는 가계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베이비 붐 세대'를 경험해 왔다. 대표적인 경제 성장 모형인 솔로우 모형은 양(+)의 인구증가율을 전제로 하여 해석됐는데, 이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는 근로자 1인당 이용 가능한 자본재의 양이 증가해 오히려 1인당 GDP는 상승한다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결론이 나온다.

또한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에서 정부가 직접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선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는 부과식(Pay-As-You-Go) 연금제도의 이론적 기반에 해당했다. 개인들의 분권화된 선택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은 저축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정부가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50~60년대에 주로 시행되었고, 연구자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구감소 상황에서는 부과식 연금제도는 적립식으로서의 전환이 불충분할 경우 그만큼 조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고령층에 대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정부의 의무적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정책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정부 부채의 누적을 가중시킬 것이며 미래세대에 점점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고전적 경제모형이 예상하지 못한 인구감소의 시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금융과 예금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학자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들은 평생에 걸친 소득을 예상하고 이를 균등하게 소비하고자 한다(소비평탄화). 개인들은 청년기~장년기에 걸쳐 소비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부(wealth)를 축적하고, 은퇴 이후부터는 부를 지출하며 생활한다. 출생인구 감소로 연령별 인구 분포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이 줄어들 경우 상대적으로 부를 인출하는 중인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져 경제 전체 부의 총량에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고연령층은 소득과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해 자산손실에 심대한 위협을 느끼며 이에 따라 높은 위험회피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하락위험이 낮은 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금융자산 내에서도 안전성 높은 예적금이나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들을 종합하면 고령화에 따른 예금 규모는 그 추세를 일방적으로 단언하기 힘들다. 다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의 활력 저하 및 미래의 조세부담은 해외 투자 경향을 촉진해 장기적인 국내 예적금 규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고령화가 금융·예금 패턴에 미치는 영향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어떨까? 국내 예금은행의 총예금액은 2004년, 2013년, 2023년 경의 일시적 정체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총예금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완만한 인구변화에 비교할 때 최근 수년간의 실질총예금 정체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과거의 패턴을 볼 때 거시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른 가계 대출 감소와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예금 보유 경향을 확인하고자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살펴봤다. 국내 가구들의 금융자산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가구주 나이가 40대 이하인 그룹은

40% 미만이지만 50대, 60대 이상인 그룹에서 금융자산 중 예적금 비중이 43%, 62%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통계의 2017년 자료와 비교하면 전 연령대에서 예적금 비중이 2.3~8.5%p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중뿐만 아니라 평균 규모도 34%가량 증가했다. 최근 자산 가격 상승기에 가계들은 펀드나 직접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금을 예금에서 인출하는 대신 주로 저축성·보장성 보험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 고령화가 가져올 미래 금융 트렌드

고령화는 금융 트렌드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시니어금융'을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로 인식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했으며 요양과 상속이라는 특수한 수요를 가진 고객집단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모바일 금융에 익숙하고 건강관리에 노력하는 현재의 장년층이 '액티브 시니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연령층은 금융 이해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해력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핀테크나 모바일뱅킹보다 창구나 폰뱅킹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금융 정보 인지 능력이 낮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계좌에 자금을 보유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휴면예금이 한 가지 사례다. 최근 공개된 휴면예금 규모는 5년간 2.5조 원 수준으로, 그중 65세 이상이 30%에 해당했다. 최종 거래일부터 5년간 찾지 않은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별도 금융기관(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해야 찾을 수 있다. 휴면예금 처리하기 전 한 차례 정도만 안내가 되기 때문에 고령 예금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휴면예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고령층은 금융사고에도 주된 피해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36.4%였다. 고령 예금 보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국내 예금 규모는 미래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감소추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소년 인구들이 독립하는 20~30년 이후에는 경제규모 축소가 분명해질 것이며, 금융과 예금업도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마구잡이 화폐발행이 불러오는 인플레이션

신리를 잃은 화폐는 휴지 조각과 다름없다

그림 한상아

## 3세기 로마

나라 빛은 잔뜩 쌓여 있고

군대는 유지해야 하고

사치도 계속 해야 하고... 방법이 없을까?

**맞아! 돈을 찍어내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는 부채를 해결해야 할 때마다 화폐를 발행해 왔다. 고대 로마 때부터 그랬다.

국가는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에서 실제 발행비용을 뺀만큼 주조차익을 남기게 되는데, 이를 시노리지(seigniorage)라고 부른다.

시노리지를 더 남기려면

실제 가치는 얼마 안되는 싸구려 화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줄이자!

점점은 함량을 줄여 발행된 로마의 은화는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새 은화를 발행하고 가격 통제 정책을 펼쳤지만, 이미 붕괴한 화폐의 가치를 되돌리려면 부족했다.

물품마다 최고가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한다!

새 은화 아르겐투스를 발행!

새로운 은화? 차라리 물물교환을 하겠다-

뒤를 이은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금화 솔리두스(Solidus)를 만들었으나

순도 95.8%, 약 4.5g의 순금으로 주조

약 1000년간 제국의 기축통화로 사용됨

제국 말기로 갈 수록 금 함량이 줄어들면서 역시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화폐 발행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더 많은 화폐 발행 = 더 많은 차익!

**인플레이션의 어원 inflare 부풀리다**

돈을 마구 찍자!

언제 터질지 몰라 무서워...

화폐 발행량을 부풀릴수록 물가도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시노리지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불린다.

어제는 은화 한 개로 닭 한 마리를 샀는데

오늘은 은화 세 개를 줘야 하네...?

오른 물가는 세금처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려고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시노리지로 재정 마련~

이게 상평통보의 100배? 왜?

당백전(當百錢)

당백전의 액면가는 상평통보의 100배에 달했으나 실제 가치는 5~6배에 지나지 않아 물가의 폭등과 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다.

거꾸로 금의 유입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는데 대항해 시대의 스페인 제국이다. 당시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양의 금이 유입되면서 통화량이 폭증한 스페인의 물가는 4배로 뛰어 올랐다.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스페인은 유입된 부를 소비로 전환했고, 종교 전쟁, 네덜란드의 독립 등이 더해져 국가 부채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신대륙에서 유입된 은이 1만 7,000t, 금은 180t

펠리페 3세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금과 은 대신 새로운 주화를 만들어 유통했지만, 그저 옛 로마의 전철을 밟게 되었을 뿐이다.

펠리페 3세 (1598-1621)

식민지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물가 폭등이라니...

이게 바로 '신대륙의 저주' 이지 뭐야.

화폐로서 지폐는 오랫동안 신뢰를 얻지 못했다. 처음에는 금·은의 가치가 담보되어 유지되는 듯했지만, 곧 발행량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모두 실패했다.

존 로 (John Law)의 왕립은행권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륙 지폐

혁명 화폐 아시냐(Assignat)

마구 찍어내 미시시피 버블을 불러 왔다.

현대의 지폐가 신뢰를 확보한 것은 1817년 영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금본위제(gold standard)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지폐 발행량은 은행의 금 보유량 이내로 제한해 교환을 보장한 것이다.

100달러 지폐를 만드는데 단돈 30센트.

그럼 100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보장하지?

지금은 금본위제가 사라진 대신 정부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폐 발행을 전담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붕괴하는 경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국가가 유사하다.

```

    graph TD
      A[과중한 국가 부채] --> B[무분별한 화폐 발행]
      B --> C[물가 폭등]
      C --> D[경제 및 신용 위기]
      D --> E[경제 붕괴]
  
```

물가 폭등과 경제 붕괴로 인한 고통은 빈곤층이 가장 많이 느끼게 되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와도 빵 한 조각을 살 수 없나요?

Nein

그건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요-

1차 세계대전 후, 초인플레이션 시대의 독일

현대의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정책

양적완화

금리조정

물가안정까지 금리동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화폐의 역사(the ascent of money)>에서 화폐란 금속에 새겨 넣은 신뢰라고 했다.

언제든 상응하는 가치로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

화폐에 대한 신뢰가 재정의 건전성과 경제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 유재훈 사장, 유럽 단일정리위원회(SRB) 의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리제도 개선방안 논의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은 7월 22일 (화) 유럽연합(EU) 단일정리위원회(SRB) 도미니크 라부헤익스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2023년 유 사장의 SRB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 기관이 부실정리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재훈 사장은 한국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부합하기 위해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정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SRB의 회원국 의견 조율 경험과 다국적 은행 정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

항 공유를 요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미국 FDIC, 일본 금융청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스위스·중국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정리당국과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 체험형 전시부스 운영



예금보험공사는 7월 23일(수)부터 24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반포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참가해 교사 및 강사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예보는 부대 행사인 전시부스에서 공사 '자체 개발 교육용 교구재 2종(예금의 달인, 땡하고 금융왕)'을 전시하고, 공사 직원이 시연 및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예보 문형욱 이사는 "이번 컨퍼런스 참여

를 통해 예보의 경제·금융교육 인지도를 제고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금융상품 예금자보호정보의 정확성 강화 시 기반 점검시스템, AIMS 구축



예금보험공사는 8월 7일(목)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관계 표시의무 이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AI 기반 온라인 표시제도 점검시스템(AIMS)을 구축했다. AIMS는 AI 기술을 활용해 은행·저축은행 홈페이지의 금융상품 안내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예금자보호안내문과 예금보호 로고 표시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점검원이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으나 AIMS 도입으로 업무가 대폭 자동화되어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예보

는 2025년 9월 1일 시행된 예금보호 한도상향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점검 대상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예별손해보험 영업 개시 및 공개매각 추진



예금보험공사는 예별손해보험(가교보험사)에 대하여 5개 손보사 계약이전 및 공개매각 병행 추진을 결정한 데 이어 9월 초 MG손해보험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통해 예별손해보험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간의 과정에서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시장 안정을 위해 MG손보 노조, 금융당국 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예보는 예별손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2025년 12월 15일(월)부터 2026년 1월 23(금)까지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약 5주간의 실사를 거쳐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개매각이 완료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 보험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이나 변경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K-예금보험 배우러 한국 왔어요



예금보험공사는 9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서울 본사와 충주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제11회 KDIC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KDIC Global Training Program, GTP)」을 실시했다. 2017년 시작 이후 11번째로 열린 올해 연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4개 대륙 23개국에서 온 예보기구 직원 47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GTP는 충주시와 협업하여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에 포

함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 참가자들은 한국의 예금보험 제도와 금융 구조조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증가하는 외화예금에 대응한 예보기구의 위험관리 기법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가 각국 예보기구의 실무 능력 향상과 국제 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도 KOICA 공공협력사업 선정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0월 10일(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한 2025년도 공공협력사업(Q-DEEP 부문)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제도 선진화를 추진 중이며, 예보는 이미 2024년 행정안전부 사업을 통해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후속 사업에서는 예금보험 IT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지급시스템 구현을 위한 상세 계획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WB·ADB 등 국제기구 및 한-ASEAN 금융협력센터와 협력을 확대해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 K-예금보험 모델을 전파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해외 금융당국과 모의 위기대응훈련 최초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11월 4일(화) 오후 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 9개 금융당국과 함께 국가 간 모의 위기대응훈련(Cross-border Crisis Simulation Exercise)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금융위기 발생 시 국경을 넘는 협력 필요사항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주요 은행이 진출한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에서는 국내 주요은행의 부실이 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외 점포 이용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각국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 범위도 함께 검토했다. 유재훈 사장은 “크레디트스위스와 SVB 사례에서 보았듯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번 훈련의 의미를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과 국내거주동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금보험공사는 11월 10일(월) 오전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국내거주동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역량을 연계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거주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보는 2023년부터 국내 거주동포 대상 맞춤형 후원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재외

동포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되었다”며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재외동포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금융·법률교육 등 공사 고유 기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거주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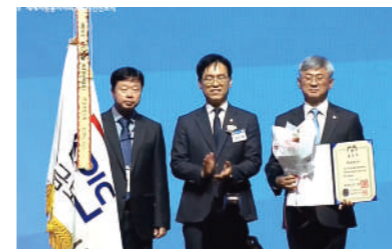
### 제13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12월 2일(화) 오후 서울 중구 본사 청계홀에서 ‘제13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저축은행 업권의 주요 이슈를 발표하고,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안정적 경영 및 리스크관리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대일 부사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업계의 자구 노력을 높이 평

가하며, 앞으로도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중소·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회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9월 1일 예금보호 한도상향 이후, 저축은행 임직원이 체감하는 여·수신 영업 및 리스크관리 변화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어 한도상향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예금보험공사는 12월 5일(금)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제20회 전국자원봉사 자대회」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단체표창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예보는 '06년 예보사랑 나눔운동을 시작으로 ‘행복예감’ 활동 브랜드를 정립(14년)하고 이웃사랑, 농어촌동반성장, 지역공감, 환경보호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예보의 꾸준한 사회공헌 노력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은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이어졌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유재훈 사장은 “이번 수상은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임직원 모두의 지난 20여 년 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ChatGPT가 알려주는 ChatGPT 사용법

# 일상과 업무를 똑똑하게 바꾸는 AI 활용 가이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ChatGPT를 활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 ChatGPT는 미국의 AI 기술 기업인 오픈AI(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따라 문장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접근해 답을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된 자료와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통계적 패턴에 맞는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hatGPT는 매우 유용하지만 동시에 항상 정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ChatGPT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일상과 업무에서 신뢰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글은 ChatGPT로부터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내용은 편집실에서 검토,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 ChatGPT는 '검색엔진'이 아니라 '문장 생성 도구'다

우선 ChatGPT를 검색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ChatGPT는 학습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최신 정책·법령·통계·기관 자료는 반드시 공식 출처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즉, ChatGPT가 제공하는 정보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초안·아이디어·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최종 판단과 검증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본 원칙이다.

##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정확한 답을 얻는다

ChatGPT는 질문의 조건이 명확할수록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행 추천해줘" → "4월, 2박 3일, 40대 2명이 예산 50만 원으로 떠날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추천해달라.", "이 내용 요약해줘" → "발표 용이므로 핵심을 5문장으로 요약해달라." 등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명확히 하면 ChatGPT는 같은 정보라도 훨씬 실용적인 형태로 재구성한다.

## 보안·저작권 측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 
**개인정보·민감정보 입력 금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통째로 입력하지 않는다**  
 도서·논문 등 저작물이 그대로 입력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생기므로 사용자가 요약한 내용을 활용한다.
- 
**기관·기업의 내부 자료를 그대로 붙여넣지 않는다**  
 대외비 문서·보고서·계약서 등은 원문 전체 입력을 피하고, 필요한 범위만 익명화하거나 요약하여 질문한다.
- 
**AI가 만들어 준 결과물은 반드시 검토 후 사용한다**  
 표현과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었는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설명은 없는지 확인한다.

## 대화를 이어갈수록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ChatGPT는 한 번의 요청으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보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보완할 때 성능이 극대화된다. "더 간결하게 정리해달라, 전문용어는 유지하되 이해하기 쉽게 풀어달라, 문장을 30% 줄여달라, 표 형태로 재구성해달라" 등으로 수정 요청을 반복하면 내용의 정확성, 표현의 명확성, 전달력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최종 문장은 사용자가 다시 검토·수정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칠 때 저작권·정확성·표현의 자연스러움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

ChatGPT는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람이 지식과 판단을 제공하고, ChatGPT는 문장 구성·정리·표현·아이디어 도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가장 안전하고 신뢰도 높게 사용하려면, 정보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고, ChatGPT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이 원칙만 유지하면 ChatGPT는 일상에서는 편리한 도우미로, 업무에서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유능한 어시스턴트가 된다. 이제 ChatGPT에게 한 문장을 던져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ChatGPT,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질문 하나가 시를 현명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첫걸음이 된다.

#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특별한 코너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이번 호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들려주는 AI 활용 경험부터 일상을 채우는 다양한 취미 이야기까지, 예보인의 개성과 목소리를 함께 나눕니다.



##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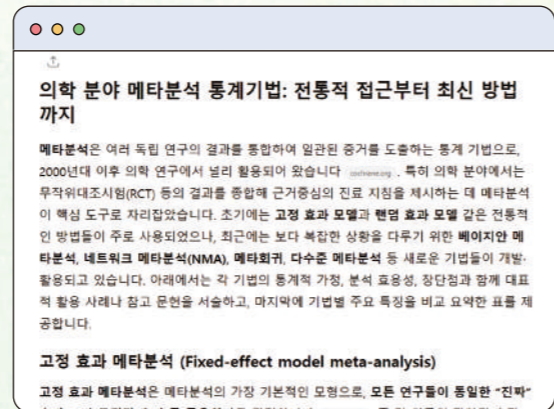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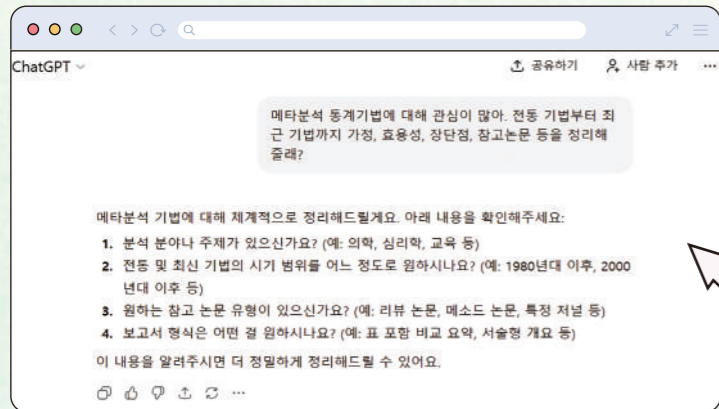
### 구글링 시간을 2시간에서 10분으로 줄여주는 AI (ChatGPT 리서치 기능)

금융회사경영지원부 이승태 선임조사역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 모델링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가끔씩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를 치고 의미 있는 자료들을 찾기 위해 수십 페이지를 뒤지다가 제 눈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겠죠. 그렇게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자료를 고르고 정리하다 보면 최소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작업을 AI를 활용하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ChatGPT의 리서치 기능을 쓰면 되는 데요.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보고서를 써주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채팅창의 "+" 버튼을 누르면 리서치 기능 버튼이 나오는데, 그걸 눌러 주시고 지시하면 됩니다. 이 기능이 진국인 게, 제가 애매하게 지시를 하면 명확하게 지시하라고 AI가 추가 질문을 던져줍니다! 10~15분 정도만 기다리면 AI가 결과물을 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전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에 도달하려면 사람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출처를 가져와서 결과물을 보여 주기 때문에 철저한 검수는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초안이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시작하는 것과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AI는 그럴듯한 초안을 주는 훌륭한 직원입니다. 아직 AI와 친하지 않은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하던 일들을 이전 AI를 써서 빠르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더군다나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1년 전에 AI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네~" 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AI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본인 곁에 두고 성능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생성형 AI로 찾는 일 본 여행의 숨은 팁

디지털혁신부 이종범 조사역

최근 엔저와 국내 여행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에는 연간 882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정보기술 발달로 여행사는 물론 다양한 경로에서 방대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탐색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여행자들은 AI를 일정 작성이나 음식점·관광지 추천 등 단편적인 용도로만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글쓴이는 일본 여행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토대로, 생성형 AI를 보다 전략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 사례 1 여행 중 캐리어 보관

교통부 최북단의 아마노하시다테를 방문한 글쓴이는 큰 캐리어 때문에 산책로와 전망대 관광이 어려웠다. 코인락커 이용은 가능했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때 생성형 AI에게 "역 근처에서 캐리어를 저렴하게(또는 무료로) 맡길 수 있는 곳"을 물어보자, 현지 여행 브이로그·블로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객의 짐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기념품 가게를 안내해 주었다. 이를 통해 비용 없이 짐을 맡기고 가볍게 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

#### 시사점

AI는 단순한 '짐 보관처'가 아니라 가격·위치·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검색엔진에서는 찾기 어려운 로컬 정보를 시가 요약된 형태로 제공해 정보 탐색 효율을 높여준다.

#### + 사례 2 지도 앱이 놓치는 '최단·최저가 루트' 찾기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고베로 이동 시 구글맵은 오사카 경유 열차 노선을 기본 추천한다. 이 경로는 약 1,400엔, 1시간 30분이 걸린다. 그러나 AI에 "외국인이 저렴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방일 외국인인 500엔으로 이용 가능한 '베이셔틀(공항-고베항 페리)'을 알려주었다. 실제 이용해 보니 약 30분 만에 고베에 도착해 시간·비용을 모두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 시사점

지도 앱 기본 경로가 반드시 최적인 아니다. 특히 외국인 할인, 페리·셔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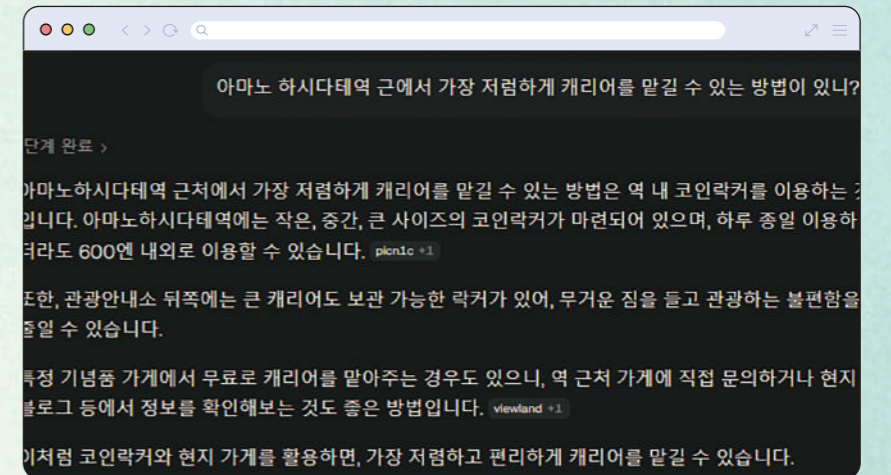
특수 교통수단이 누락되기 쉽다. AI는 조건(시간·비용·환승 최소화 등)을 반영해 교통 옵션을 비교해줘 훨씬 전략적인 이동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 + 사례 3 항공사·지자체 관광 프로모션 찾기

도쿠시마 여행을 준비하던 글쓴이는 AI에게 "방일 외국인을 위한 지역 교통·관광 혜택"을 문의했다. 그 결과, 도쿠시마 현에서 외국인에게 2일간 무료 버스 패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내 이동과 관광지를 모두 버스로 해결하는 비용 절감형 일정을 구성할 수 있었다.

#### 시사점

외국인 대상 무료 패스나 지역 쿠폰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일본어 정보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AI는 "지역 + 외국인 혜택" 조합을 통해 이런 숨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며, 교통비를 '0원'으로 두고 동선을 설계하는 등 여행 디자인 자체를 혁신할 수 있다.



## HOBBY

### 내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

홍보실  
김기영 팀장

홍보실에서 일하며 기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주말엔 뭐 하세요?”, “취미가 있으신가요?”, “미술관에 왜 가세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이해는 되지만 막상 답하기는 쉽지 않다.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도, 좋아하는 건 그저 좋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사실 나도 처음부터 미술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계기는 우연이었다. 작년 여름, 경남 산청 수선사에서 최성숙 화백의 전시를 보게 되었고, 잠시 더위를 식히러 들렀다가 생애 처음으로 그림을 구매했다. 미술부 활동도 억지로 했던 어린 시절, 루브르와 오르세를 의무감에 들렀던 여행 경험 정도뿐이던 나에게 그림을 산다는 일은 낯설고도 신기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 점의 소장품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작가가 궁금했고, 작품 세계와 삶을 알고 싶어졌다. 그 과정에서 최성숙 화백이 세계 3대 조각가라 불린 문신 작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책을 읽고 창원 문신 미술관까지 찾아갔다. 이후 문신 작가와 활동을 함께한 천경자 화백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 속 공허한 눈빛, 화려한 꽃, 석재 안료의 반짝임을 보고 왜 그가 ‘꽃과 여인의 화가’, ‘정한의 화가’라 불리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어졌다.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누하동 옛 집터와 전남 고흥 생가까지 찾아갔다. 마침 2024년 탄생 100주년 특별전도 열렸다. 그 과정에서 김한기, 박래현, 박고석, 유영국, 황염수, 한묵, 임직순 등 주변 예술가들의 세계까지 확장되며 미술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온라인에 없는 책은 광주의 미술 서점에서 직접 구하기도 했다. 이제 누군가 “그림이 왜 좋은가요?”라고 묻는다면 말할 수 있다. 그림 너머로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감정, 그들과 얽힌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천경자 화백의 작품은 석파정 서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전남도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주말, 그녀의 세계를 직접 만나보는 건 어떨까.

\* 서울옥션, K옥션 등에서 거의 매회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출품되므로 무료로 현장에 방문해 감상할 수 있다.



천경자 화백 전시회 포스터(출처: 석파정서울미술관)

### 나는 퇴근 후 성수에서 물감과 데이트한다

성과경영실  
박은진 조사역

무엇보다 “이건 본업이 아닌 취미”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처음엔 생각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아 막막했지만, 선생님이 “물감 잘못 칠한다고

인생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해준 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 순간부터 과감해졌고, 붓질도 자연스러워졌다. 내가 상상하던 수채화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선생님도 터치가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었다. 요즘은 “내가 홍대 미대생이다”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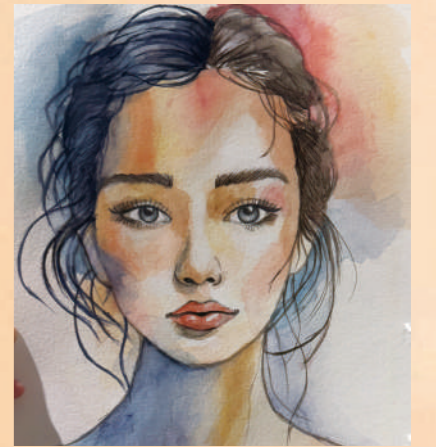
작업실에서의 박은진 조사역

+ TIP

### 나만의 팁

화실을 고를 때는 두 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재료를 제공하는 화실. 초보자는 어떤 용품이 맞는지 알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둘째, 취향이 맞는 선생님 찾기. 수채화도 스타일이 다양해 처음엔 선생님의 방향을 따라가기 쉽다. 인스타·블로그 등을 통해 선생님과 화실 작품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된다.



처음으로 완성한 수채화

### 새가 되어 풍경을 감상하자 드론 비행 촬영

예금보험연구소  
김태균 차장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최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드론이 많이 출시되고, 이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더 커졌다. 직접 조종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드론을 취미로 시작하게 됐다. 드론을 날리며 가장 크게 느끼는 즐거움은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평소 걸어 다니며 볼 수 없던 풍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고, 촬영을 거듭할수록 구도나 움직임이 생각하게 되면서 촬영 기법도 조금씩 향상되는 것이 느껴진다. 빠른 속도로 비행할 때는 자연스럽게 집중과 몰입이 이루어져,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취미의 큰 매력이다. 드론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꼭 고가의 장비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다. 저렴한 제품이나 중고 장비, 완구용 드론이나 헬리콥터로 가볍게 시작해도 충분하다. 직접 해보며 이 취미가 나에

게 잘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드론은 아무 장소에서나 날릴 수 있는 취미는 아니다.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며 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MOVIE

## 신앙의 겨울이 온다면 이창동 '밀양'

안전경영실  
구동현 선임조사역



©영화 <밀양> 공식 포스터

겨울을 떠올리면 나무가 생각한다. 나무는 추위 앞에서 잎을 모두 버리고 맨 몸으로 선다. 거짓과 굳어디기가 떨어져 나가고 핵심만 남는다. 영화 「밀양」을 보며 나는 신앙과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었다. 김현승 시인이 말한 “신앙이 시퍼런 겨울의 입증의 칼날 위에 서는 날”, 인간은 어떤 신념을 옹호해야 하는가. 영화에서 ‘밀양(密陽)’은 ‘비밀스러운 햇빛’을 뜻한다. 마지막 장면에 비치는 빛도 여름의 강렬함이 아니라 희망인

지 절망인지 모를 겨울의 은밀한 빛이다. 이 빛은 하나님·진리를 상징하면서도, 감춰진 절망과 구원의 모순을 품은 공간이기도 하다.

신애(전도연)는 아들과 새 출발을 위해 밀양에 내려오지만, 유치원장이 아들을 유괴하고 신애가 가짜 돈을 두고 오자 결국 아이를 살해한다. 절망 속에서 신애는 기독교에 기대지만, 꿈속에서 아들을 반복해 만나고, 유괴범에게 가짜 돈을 건네는 등 스스로도 의심과 거짓의 흔적을 가진 인물이다.

그럼에도 신애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교도소에 찾아가 간다. 그러나 유괴범은 이미 스스로 회개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밝고 평온한 얼굴로 말한다. 피해자인 신애가 용서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가해자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신애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이 장면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처참한 면회 장면으로 꼽힌다. 결국 신애는 종교 활동을 멈추며 흔들린다. 신앙이 시험대에서는 순간은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불가능한 과제를 마주할 때일지도 모른다.

신애 주변에는 선량함과 순진함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다. 신애를 돕는 종찬(송강호), 교인들 등이지만, 그들의 선의는 신애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거나 치유하지 못한다. 유괴범의 전화를 받고 종찬을 찾아간 신애는, 그가 혼자 유흥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둘 사이를 가르는 유리벽은 그 간극을 상징한다.

후반부에 종찬이 위로하려고 데려간 곳이 우연히도 유괴범의 딸이 일하는 미용실인 장면에서도 신애의 상처는 더욱 도드라진다.

결국 영화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신앙의 명령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지를 묻는다. 단순한 선이나 집단적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닿을 수 없다. 그 사랑은 공동체·죄·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 속에서만 겨울의 희미한 빛처럼 포착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밀양」은 종교의 시선을 넘어 인간의 실존을 조명하는 영화가 된다.

나무가 잎을 버려야만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공동체의 기대·선입견·비대한 자아라는 잎사귀를 떨구어야 한다. 나뭇처럼 떨어져 스스로를 마주해야만 겨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봄이 오면 인간은 또다시 잎을 달아 거짓과 악함을 숨길 것이다. 그러나 겨울은 또 오고, 희망은 언제나 은밀하다. 그것은 스스로 포착해야 하는 비밀의 빛이며, 소설가 이상의 말처럼 비밀이 없는 삶은 재산 없는 것처럼 허전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상, 「실화失花」中)

1억원까지 커진 안심,  
참 다행이야!



# 소중한 예금,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노후 준비도 2배로 UP  
참, 다행이야!



예금보험공사 홍보대사  
이혜성

○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DC, IRP),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각각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